



2026년 05월 28일 | 산업분석_Update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05월 27일

SKT(017670)

BUY | TP 140,000원 | CP 100,400원

KT(030200)

BUY | TP 76,000원 | CP 53,400원

LGU+(032640)

BUY | TP 20,000원 | CP 15,140원

통신서비스 6월 투자 전략

차별화 장세 지속될 듯, SKT Multiple 확장은 가능할 전망

6월 투자 매력도 '높음'으로 유지, 통신서비스 업종 투자 환경은 양호 평가

국내 통신서비스 업종에 대한 12개월 투자 의견을 비중확대로 유지한다. 더불어 2026년 6월 통신서비스 업종 투자 매력도를 '높음'으로 유지한다. 최근 마케팅 경쟁 강도를 감안할 때 KT를 제외한 SKT/LGU+의 2026년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YoY/QoQ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낼 전망이다. SKT에 이어 LGU+ 역시 장기 주주환원 증가 기대감 확산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6월 미국 주파수 경매는 전세계적으로 5G SA 시대로의 돌입과 더불어 AI 기지국 확대를 바탕으로 AI 중심 요금제로의 전환을 이끌 것으로 보여 통신장비주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국내 통신주에도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과거 사례로 볼 때 통신장비주의 수급이 통신서비스로 일부 확대될 수 있어 그렇다.

통신장비주보단 확실히 못하지만 시간 흘러가면서 주가 상승 기대감 높아질 것

6월 통신 서비스 업종 이슈는 많지 않다. 1) 미국 5G 주파수 경매, 2) 국내 피지컬 AI 활성화 위한 AI RAN 도입 플랜, 3) 미국/국내 통신장비주 급등에 따른 통신서비스주로의 매수세 확산 가능성, 4) 중국 AI 토큰 요금제 출시, 5) 2분기 SKT/LGU+ 실적 호전 가능성 정도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전망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이슈가 많지 않은 가운데 글로벌 5G SA 도입 확산, 피지컬 AI 활성화 가능성 정도가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면서 통신 3사 주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미국의 주파수 경매와 5G SA 도입 확산 가능성은 국내 통신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내 통신 3사 Multiple 확장, 배당수익률 밴드 하향 기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6월 종목별 투자 매력도는 SKT>LGU+>KT, SKT Multiple 높게 형성될 전망

단기적으로 6월 통신서비스 업종 내 종목별 투자 매력도를 SKT>LGU+>KT 순으로 제시하고 12개월 Top Pick과 마찬가지로 6월 통신서비스 월간 Top Pick 역시 SKT로 제시한다. 이익과 배당, AI 이슈로 볼 때 그나마 3사 중 유일하게 재료가 살아 있으며 성장성 감안 시 경쟁사들과 기대배당수익률 차이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SKT는 단기뿐만 아니라 장기 투자 매력도도 높다는 판단인데 기저 효과로 2~3분기 실적이 양호하게 발표될 전망이다. AI RAN 및 피지컬 AI, 양자암호통신 관련해서도 3사 중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 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국책 AI 사업자 선정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단기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1. 6월 통신서비스 업종 투자 매력도 ‘높음’으로 제시

1) 통신서비스 업종 투자의견 ‘비중확대’로 유지

통신서비스 업종에 대한 투자의견을 ‘비중확대’로 유지, 장기 실적 및 배당 전망 밝고 아직 저평가 상황이기 때문

통신서비스 업종에 대한 12개월 투자의견을 ‘비중확대’로 유지한다.

이러한 평가를 하는 이유는 1) 장기적으로 보면 이익 성장을 바탕으로 주주이익환원 확대 움직임이 지속될 전망이고, 2) 네트워크 진화 이벤트 및 시중 금리 추이를 감안하면 국내 통신 3사 배당수익률이 여전히 매력적인 상황이며, 3) 2027년도엔 5G SA 전환에 따른 새로운 요금제 출시가 예상되고, 4) 글로벌 4차 산업 패권 경쟁이 심해지면서 통신 규제 정책이 요금인하 권고에서 통신산업 육성 쪽으로 전환될 전망이며, 5) 본질적으로 2027년 하반기에나 통신사업 이익 성장이 다시 본격화될 전망이지만 차세대 서비스 개시기대감으로 2026년 Multiple 확장 국면이 미리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도표 1. 통신서비스 업종 투자의견

구분	투자의견 (6월)	투자의견 (5월)	등급 변화	사유
통신 업종	비중확대	비중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신사 장기 주주환원금액 증가 추세 유지될 것 DPS 성장 가능성 감안 시 통신 3사 배당수익률 높은 상황 5G SA 도입 이후 통신사 새로운 요금제 출시 전망 통신 규제 정책이 산업 육성 쪽으로 전환될 것 이익 성장 기대감 높아지며 Multiple 확장 국면 진입 예상

주: 업종 투자 의견은 향후 12개월 기준으로 비중확대, 중립, 비중축소로 구분
자료: 하나증권

2) 6월 투자 매력도 ‘높음’ 제시, 실적/배당/네트워크 진화 이슈가 주가 올릴 것

6월 통신주 투자 매력도 높음으로 유지, Multiple 상승 가능성에 주목

2026년 6월 통신서비스 업종 투자 매력도를 ‘높음’으로 유지한다. 최근 마케팅 경쟁 강도를 감안할 때 KT를 제외한 SKT/LGU+의 2026년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YoY/QoQ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낼 전망이며 SKT에 이어 LGU+ 역시 장기 주주환원 증가 기대감 확산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6월 미국 주파수 경매는 전세계적으로 5G SA 시대로의 돌입과 더불어 AI 기지국 확대를 바탕으로 AI 중심 요금제로의 전환을 이끌 것으로 보여 통신장비주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국내 통신주에도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과거 사례로 볼 때 통신장비주의 수급이 통신서비스로 일부 확대될 수 있어서다.

아직은 이른 감이 있지만 2분기 통신사 실적은 양호할 전망이다. 낮아지고는 있지만 이동전화매출액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인건비 하향 안정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마케팅비용/감가상각비 역시 정체 양상이라 전체적으로 비용 안정화에 따른 이익 성장 기초가 이어질 것이라 판단이다.

여기에 장기 주주환원 증가 기대가 예상된다. SKT가 이미 1분기 주당 830원의 배당금을 지급한 데 이어 비과세 배당이 진행되는 4분기 추가적인 배당금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 LGU+가 2분기 실적 발표 전후 올해 자사주 매입 및 내년도 소각분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SKT 배당 정상화가 이루어진 가운데 비과세 배당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며 LGU+의 장기 주주환원 증대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라 기대를 갖게 한다.

국내 이슈는 아니지만 6월 미국에서 5G 주파수 경매가 개시된다는 점도 국내 통신사 주가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AI 3대 강국을 목표로 삼는 정부 정책에 미국의 5G SA 전격 도입 이슈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AI는 기지국 최적화의 도구가 아니라 AI 성공을 위해 기지국이 변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역할론이 달라지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각국 규제 당국은 피지컬 AI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AI RAN 구축을 강조하고 나서고 있으며 5G SA/6G 구축을 계기로 AI RAN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AI RAN과 엣지 컴퓨팅 기술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AI 중심의 새로운 기지국 구축을 위하여 5G SA 도입을 거쳐 6G로 빨리 진화해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셈이다.

이미 각국의 규제 기관은 5G 서비스 확장을 위한 신규 주파수 공급에 나서고 있으며 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세제 혜택 지원 방안도 내놓고 있다. 곧 새로운 5G 요금제를 논의할 것이며 CAPEX 증대를 빌미로 요금 인상이 용인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통신서비스 업종 PBR 상승, 배당수익률 밴드 하향 조정이 나타날 전망이다. 과거 통신서비스 업종은 새로운 네트워크의 출현과 요금제 개편을 통해 성장을 지속하였다. 더불어 통신서비스 업체들의 배당수익률 밴드는 요금제 개편 논의가 시작되면서 급격히 낮아지는 형태를 보였다. 이러한 과거 흐름을 감안하면 결국 현재 국내 통신서비스 업체들의 Multiple 확장 국면이 본격화될 가능성에 주목해야할 것 같다.

도표 2. 통신서비스 업종 투자 매력도

구분	투자 매력도 (6월)	투자 매력도 (5월)	매력도 변화	사유
통신 업종	4	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케팅 비용을 감안 시 SKT/LGU+ 2분기 실적 양호할 전망 • SKT 배당 조기 정상화, 4분기 이후 비과세 배당 전망 • LGU+ 8~9월 자사주 매입/소각 로드맵 발표 예상 • 미국 5G 주파수 경매 6/2일 실시, 5G SA 시대 본격 개막 • 피지컬 AI 경쟁 본격화, 규제기관/기업들 5G SA 도입 필요성 강조 • 중국 통신사 토큰 기반 AI 패키지 요금제 출시, AI 과금화 추진 • 피지컬 AI 활성화 위해 AI RAN 구축 전망, 5G SA 기지국 변화 예상 • 5G SA/6G 투자 활성화 위해 통신사 요금제 개편 시도 예상 • 4G/5G 통합 요금제 출시 전망, 신규 요금제 출시 가능성 대두 • SKT 주가 상승에도 5G SA 시대 돌입 감안 시 Valuation 부담 낮음 • 통신사 장기 DPS 성장성 감안 시 기대배당수익률 낮지 않음 • 낮은 기저로 SKT/LGU+ 2026년 높은 이익 성장 전망 • 5G 신규 요금제 출시되면서 27년 APRU 상승 기대감 생길 것 • SKT 과징금 부과 관련 행정 소송 진행, 규제 공포 감소 • 4차산업 패권 경쟁 이슈로 신정권 출범에도 규제 리스크 낮아 • 제 4 이동 주파수 할당 대가 일시납 추진, 사업자 선정 어려울 듯 • 제조사간 경쟁 미약, 국내 통신유통시장 과열 가능성 낮아

주: 투자 매력도는 향후 1개월 기준으로 5. 매우 높음, 4. 높음, 3. 보통, 2. 낮음, 1. 매우 낮음으로 평가
 자료: 하나증권

3) 5월 통신업종 수익률은 KOSPI를 크게 하회, 단 종목별 차별화 양상 지속

최근 1/3개월간 통신주 수익률은 KOSPI 수익률을 크게 하회, 그나마 SKT 상대적 양호 현상 지속 중

5월 국내 통신 서비스 업종 수익률은 KOSPI 수익률을 크게 하회하였다. 반도체 위주의 주가 상승으로 수급 쓸림이 발생한 영향이 컸다. 특별한 재료가 없는 가운데 시장에서 소외되면서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이 이어졌다.

하지만 종목별로는 수익률에 큰 차이를 보였다. SKT는 비록 시장수익률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주가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을 나타낸 반면 KT와 LGU+는 시장수익률을 30%p 가량 하회하는 극심한 부진을 보였다. 아무래도 KT는 인건비 증가 및 배당 정체가 약재로 인식되었다고 볼 수 있겠으며, LGU+는 올해 주주 환원 총액 감소에 대한 우려감이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도표 3. 2026년 5월 통신서비스 업종 수익률 점검

(단위: %, %p)

업종명	1개월 등락률	3개월 등락률	1개월 시장대비 초과수익률	3개월 시장대비 초과수익률
통신업종	(4.4)	1.4	(24.7)	(26.2)

주: 지수는 5/26일 종가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4. 2026년 5월 KOSPI 대비 종목별 수익률 점검

(단위: %, %p)

종목명	1개월 등락률	3개월 등락률	1개월 시장대비 초과수익률	3개월 시장대비 초과수익률
SK텔레콤	2.1	24.1	(17.5)	(3.5)
KT	(12.2)	(16.1)	(32.9)	(43.7)
LG유플러스	(6.6)	(12.9)	(27.3)	(40.5)

주: 주가는 5/26일 종가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4) 6월 통신주 시장 수익률 수준 예상, 미국 통신주 동향이 긍정적 영향 미칠 듯

6월 국내 통신서비스 업종 수익률 KOSPI 수준이 될 듯

2026년 3~4월과 달리 2026년 5월엔 국내 통신서비스 업종이 최악의 부진을 나타냈다. 하지만 6월엔 시장수익률 수준의 주가 성과가 예상된다. KOSPI 단기 급등으로 주식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미국 발 주파수 경매가 던지는 메시지가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 국내에선 5G 추가 주파수 할당 및 신규 주파수 투자, 요금제 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상황이지만 점차 이슈화될 것으로 판단한다.

6월 통신 서비스 업종 이슈는 많지 않다. 1) 미국 5G 주파수 경매, 2) 국내 피지컬 AI 활성화 위한 AI RAN 도입 플랜, 3) 미국/국내 통신장비주 급등에 따른 통신서비스주로의 매수세 확산 가능성, 4) 중국 AI 토큰 요금제 출시, 5) 2분기 SKT/LGU+ 실적 호전 가능성 정도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전망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이슈가 많지 않은 가운데 글로벌 5G SA 도입 확산, 피지컬 AI 활성화 가능성 정도가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면서 통신 3사 주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미국의 주파수 경매와 5G SA 도입 확산 가능성은 국내 통신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내 통신 3사 Multiple 확장, 배당수익률 밴드 하향 기초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전세계 빅테크 기업들은 피지컬 AI 성공을 위해 네트워크 고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AI에 특화된 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세계 규제 기관들은 피지컬 AI를 활성화하기 위해 네트워크 지원 측면에서의 다양한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통신 요금 인상을 용인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통신사들은 5G SA를 거쳐 6G를 도입하고 요금제 개편에 나서면서 새로운 성장을 모색할 전망이다.

과거 새로운 요금제 출시는 통신사 서비스매출액 성장의 원천이었다. 또 새로운 요금제 출시는 배당 성장의 근간을 마련했다. 그런데 과거 통신 후발주자였던 중국이 이미 토큰 기반의 AI 요금제 출시를 통해 데이터 위주의 성장을 AI 중심의 매출 성장으로 변화시키려고 한다. 피지컬 AI 3대 강국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 국내 규제 기관이 긴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여름 국내에서 하이퍼 AI 네트워크 전략 후속 정책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끈다. 하반기 국내 외 다수 국가에서 요금제 개편과 함께 AI 중심의 5G SA 시대가 열리는 모습이 연출될 전망이다. 서서히 통신사 장기 실적 기대감 확산과 더불어 Multiple 확장 국면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 6월엔 시장 평균 이상의 수익률 달성이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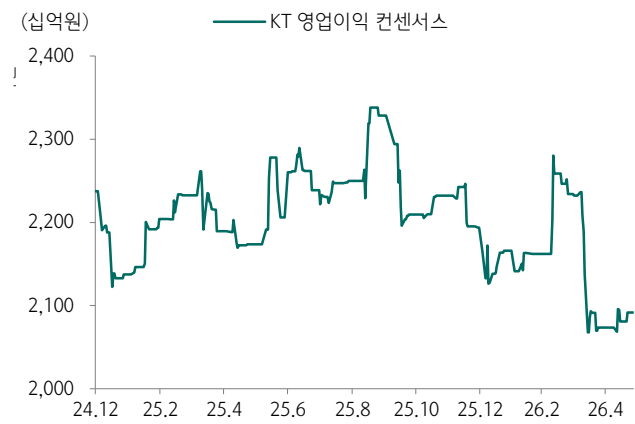
도표 5.6월 통신서비스 업종 이슈 점검

6월 미국을 중심으로 5G SA 도입 본격화될 전망, 국내 통신주에도 긍정적 영향 미칠

구분	내용
긍정적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6/2일 5G 주파수 경매 실시, 버라이즌/AT&T/스페이스X 참여 예상 미국 주식 시장에서 통신 업종의 상대적 강세 지속되는 양상 중국 토큰 기반 AI 요금제 출시, AI 과금제 시도 본격화 SKT/LGU+ 5G SA 연내 상용화 예정 언급, 하반기 이후 요금제 개편 논의 예상 SKT 1분기 DPS 830원 지급, 2024년 수준의 영업이익/배당금 지급 전망 최근 마케팅 경쟁 강도 감안 시 SKT/LGU+ 2분기 실적 양호할 전망 기저 효과로 2026년 SKT/LGU+ 높은 이익 성장 달성 전망 하이퍼 AI 네트워크 전략 발표, 국내도 2026년 5G SA로 전환 예상 피지컬 AI 경쟁 심화, 국내에서도 네트워크 고도화 전략 추진 본격화 전망 미국을 중심으로 양자암호통신 급부상, 차세대 서비스에 기본 탑재/킬러 서비스 역할 수행할 듯 제조사간 경쟁 어려워 단통법 폐지에도 국내 통신 유통 시장 크게 영향 받긴 어려운 상황 규제 당국 추진에도 제 4 이동통신사업자 선정 가능성 낮음, 재무적 이슈 여전히 크기 때문
부정적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동전화매출액 정체 양상, 비용 통제로 이익 증가하는 전형적인 성숙기 후반 모습 연출 중 국내의 경우 미국/중국과 달리 5G SA 활성화, AI RAN 도입에 적극적이지 못한 상황 KT 토탈 영업 TF로 배치된 2,300명 본업 복귀, 26년 이후 인건비 다시 증가 예상 LGU+ 자사주 소각 규모 감소로 2026년 연간 주주이익환원 규모 일시적 감소 예상 SKT를 제외한 KT/LGU+ 2026년 배당금 정체 예상 2024년 이후 트래픽 정체 양상 심각, 요금제 개편 없을 시 통신사 매출 증가 우려감 커질 것 통신사+금융권 합산 알뜰폰 M/S 60%로 제한 전망, MVNO 가입자 확대에 제동 걸릴 전망 AI 등 신사업 성과 부진, 유료화/요금제 도입 험난한 상황 국내 통신사 PBR 낮지만 해외 통신사 대비 ROE가 낮은 편
종합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신사 2026년 이익 증가/DPS 성장 흐름 전망, 5G SA 도입 기대감 팽창 국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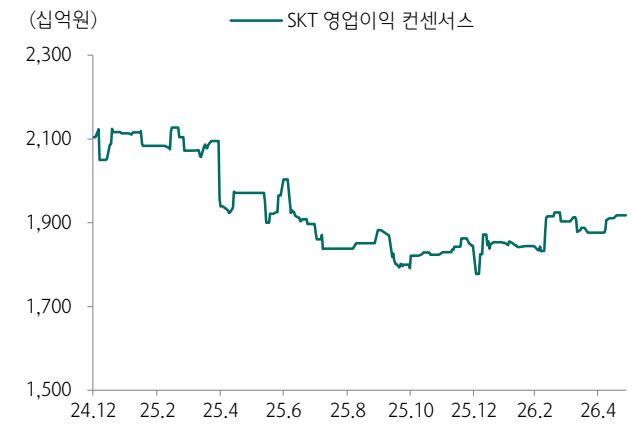
자료: 하나증권

도표 6. KT 2026년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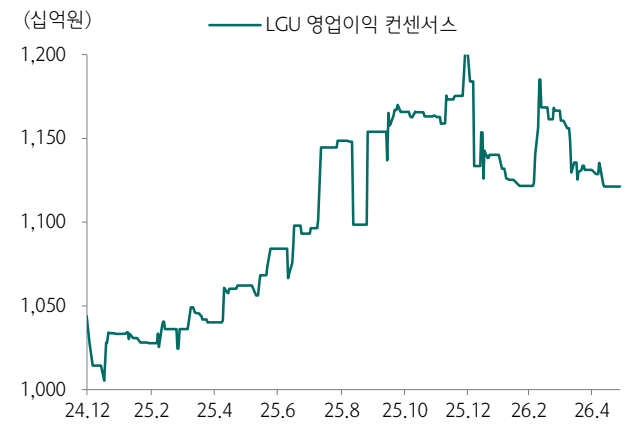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7. SKT 2026년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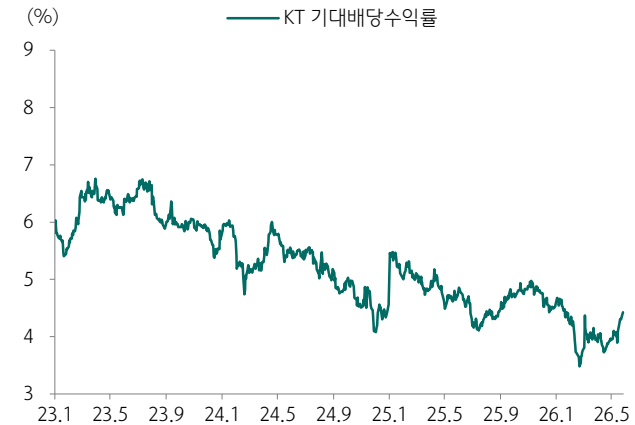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8. LG유플러스 2026년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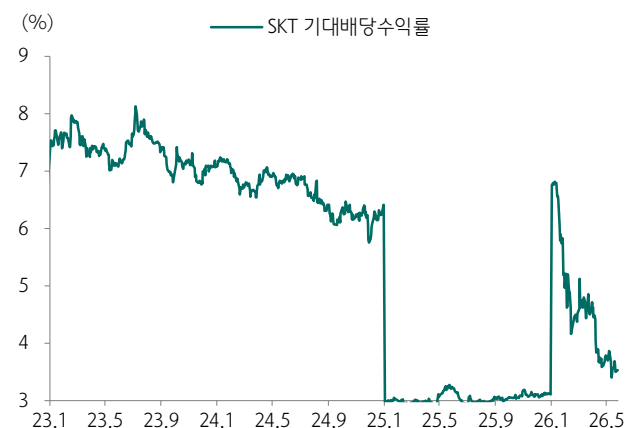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9. KT 기대배당수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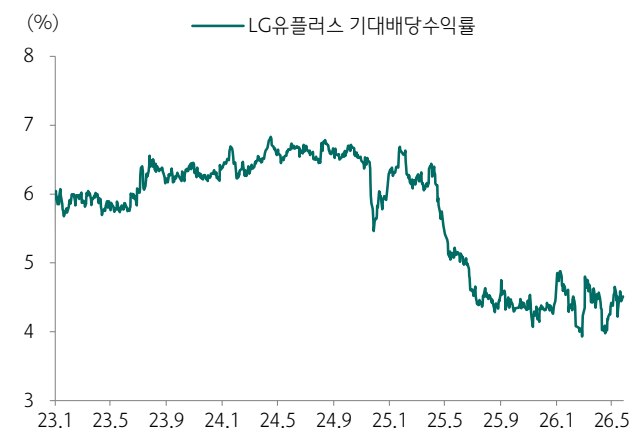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10. SK텔레콤 기대배당수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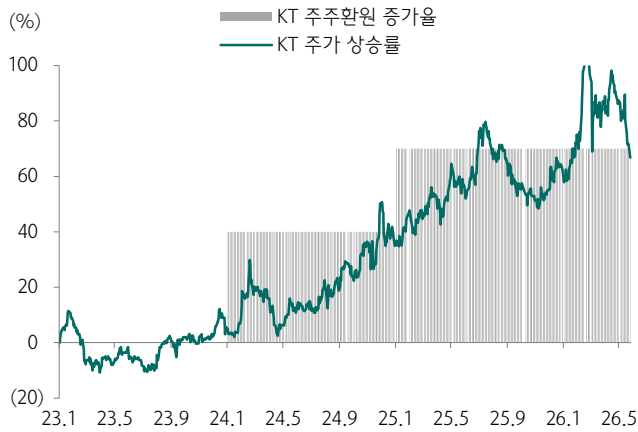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11. LG 유플러스 기대배당수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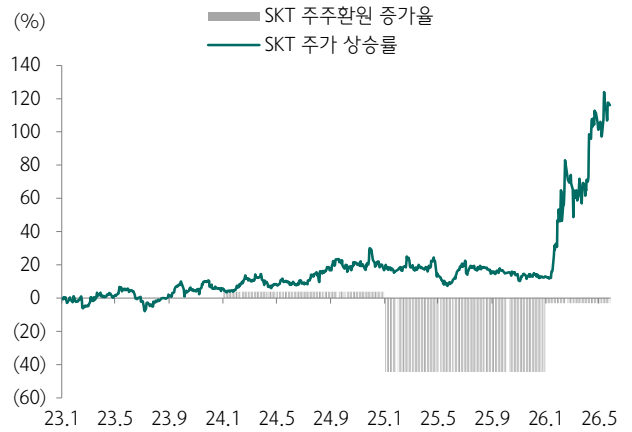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12. KT 3년전 대비 주주환원 vs 주가 상승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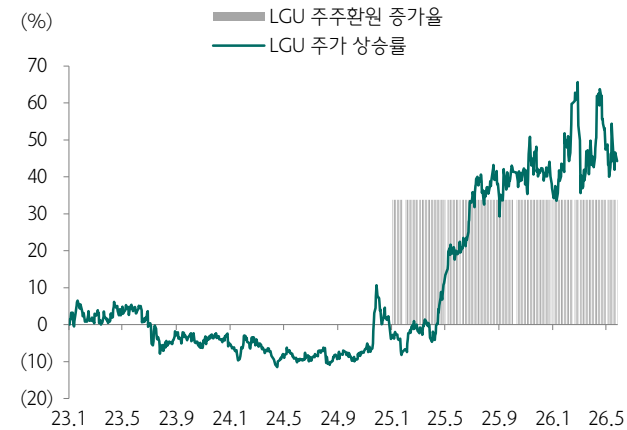
주: 2023.1=100 기준, 2026년 주주환원금액은 하나증권 추정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13. SK텔레콤 3년전 대비 주주환원 vs 주가 상승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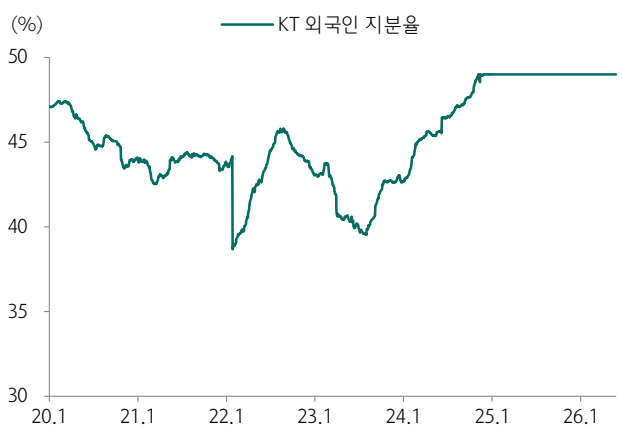
주: 2023.1=100 기준, 2026년 주주환원금액은 하나증권 추정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14. LG유플러스 3년전 대비 주주환원 vs 주가 상승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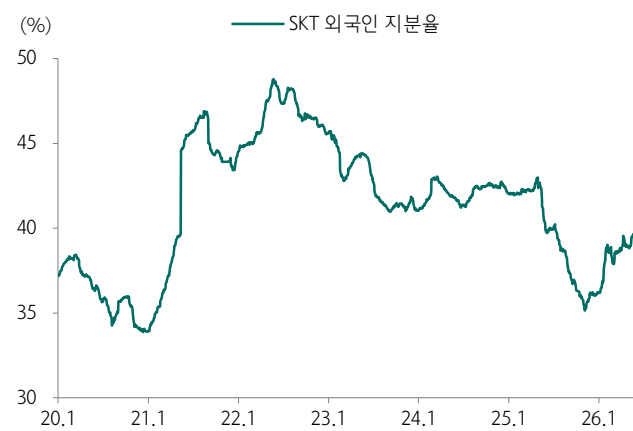
주: 2023.1=100 기준, 2026년 주주환원금액은 하나증권 추정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15. KT 외국인 지분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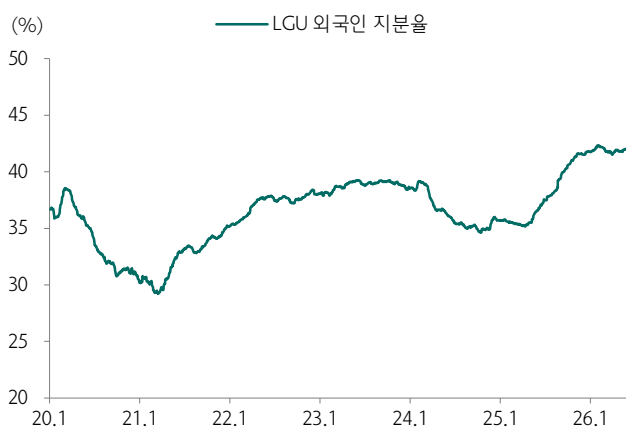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16. SK텔레콤 외국인 지분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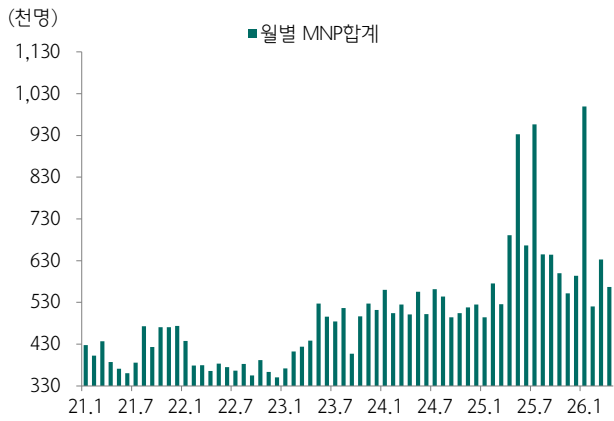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17. LG유플러스 외국인 지분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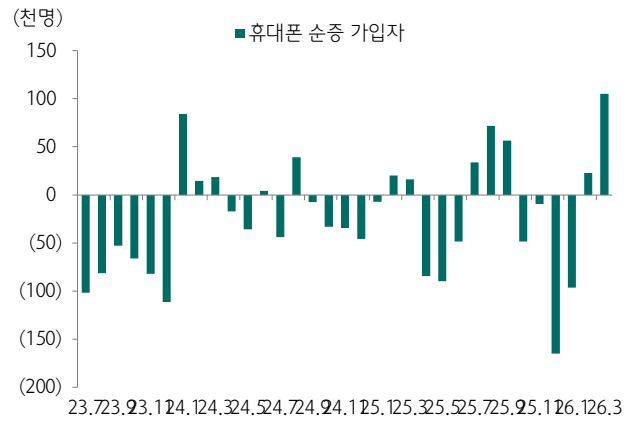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18. 월별 이동통신 MNP 합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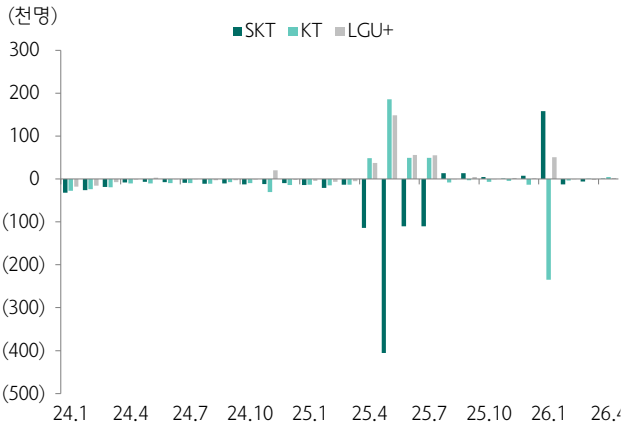
자료: KTOA, 하나증권

도표 19. 휴대폰 순증가입자수 추이(통신 3사 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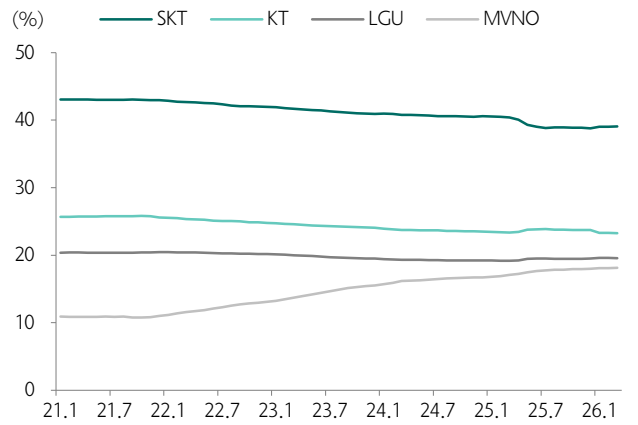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20. 사업자별 MNP 순증(순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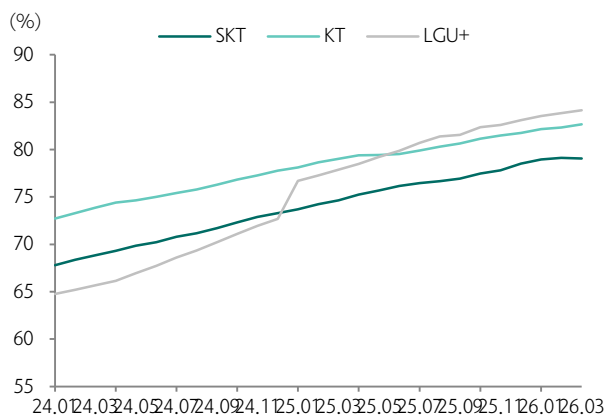
자료: KTOA, 하나증권

도표 21. 휴대폰 누적가입자수 M/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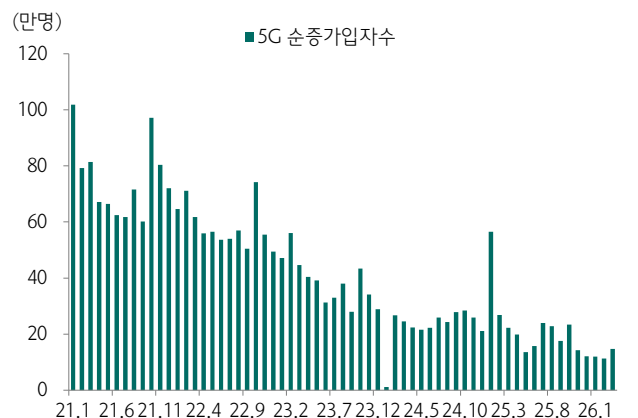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22. 통신 3사 5G 보급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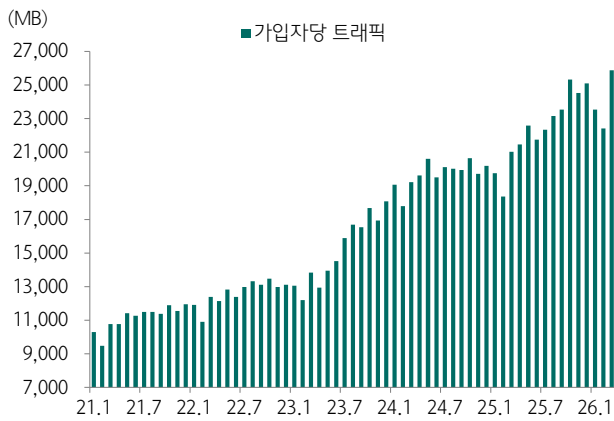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23. 5G 순증가입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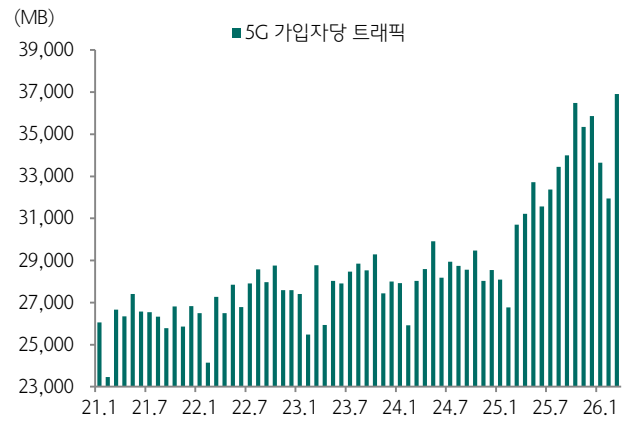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24. 국내 가입자당 트래픽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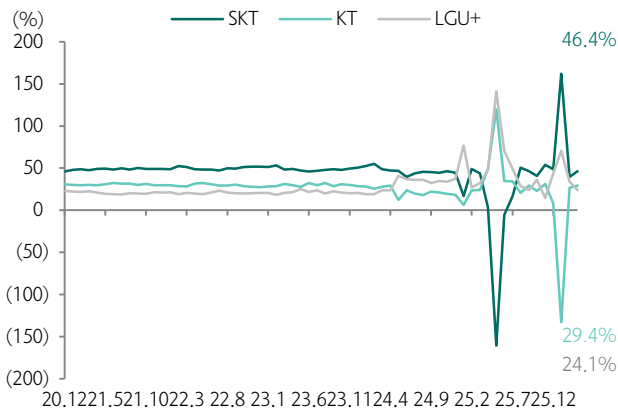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25. 5G 가입자당 트래픽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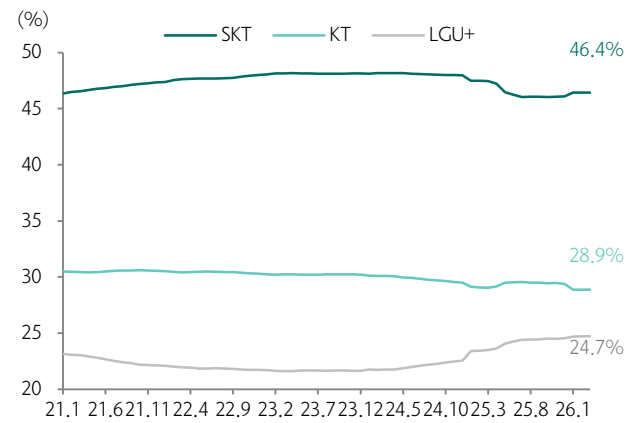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26. 5G 순증 가입자 M/S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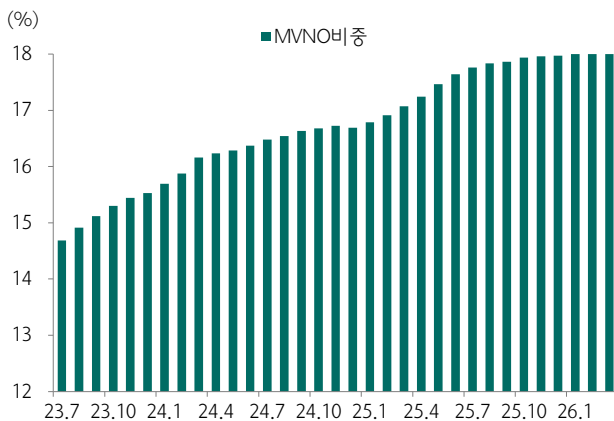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27. 5G 누적 가입자 M/S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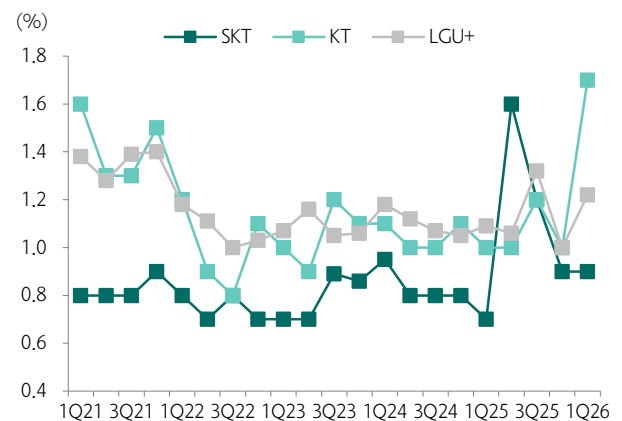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28. MVNO(재판매)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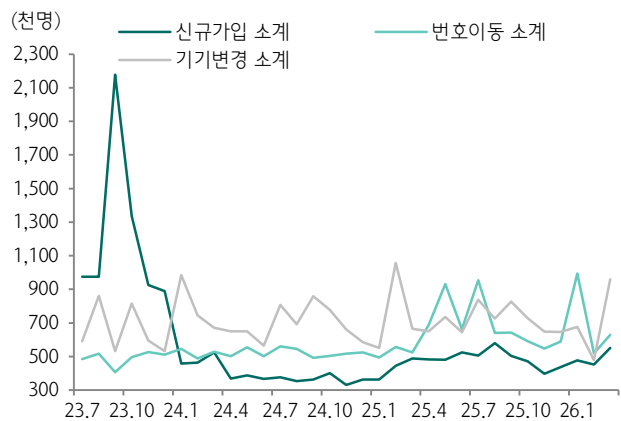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29. 통신 3사 분기별 해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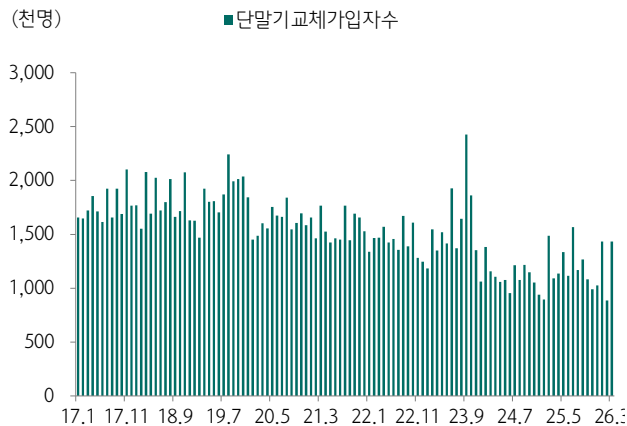
자료: 각 사, 하나증권

도표 30. 이동전화 가입 유형별 가입자수 추이 (재판매제외)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31. 통신 3사 단말기교체가입자수(신규+기변+MNP) 합계 추이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2. 12개월 Top Pick을 SKT로 유지, 6월 투자매력도는 SKT>LGU+>KT 순으로 평가

1) 12개월 Top Pick을 SKT로 유지

12개월 Top Pick을 SKT로 유지, 2026년에는 이익 급성장 속에 DPS 정상화, AI 국책 사업자 선정 예상되기 때문

통신서비스업종 12개월 Top Pick을 SKT로 유지한다. 1) 장/단기 이익 흐름 및 성장률, 2) 장/단기 배당 또는 주주이익환원 성장률, 3) 기대 배당 수익률 및 주주환원 수익률, 4) 네트워크 경쟁력 및 차세대 서비스 도입에 따른 수혜 정도, 5) M/S 추이 및 매출액 성장률, 6) 마케팅비용/감가상각비/경비 등 비용 전망, 7) 정부 규제 영향, 8) 유통 경쟁력 및 유통 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 9) 신사업 및 M&A가 실적 및 주가에 미치는 영향, 10) 자회사 실적 및 IPO 추진 예상, 11)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 및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이러한 기준 하에 향후 12개월간 투자 매력도를 평가하면 통신 3사 중 SKT가 가장 투자 유망하다는 판단이다.

무엇보다 SKT를 12개월 장기 Top Pick으로 제시하는 이유는 2025년과는 달리 2026년에는 통신 3사 중 가장 높은 이익 성장이 유력한 가운데 조기 DPS 정상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5G 신규 요금제 출시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장기 DPS 성장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라 여전히 기대배당수익률은 매력적이란 판단이다. 장기적으로 2027년에는 비과세배당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올해 국책 AI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고 5G SA 도입 기대감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 주가 우상향 기조가 예상된다.

도표 32. 통신 3사 투자 환경상 긍정적/부정적 요인 점검

구분	긍정적 요인	부정적 요인
SKT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적으로 해킹 관련 손실 2025년 전액 반영 낮은 기저로 2026년도엔 높은 이익 성장 전망 SK브로드밴드 실적 호전 본격화, 자회사 배당금 유입 지속될 전망 현금흐름 개선, 2026년도엔 DPS 급증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휴대폰 가입자 감소 지속, M/S 하락 양상 5G 가입자 정체/이동전화매출액 정체 양상 5G SA로의 진화, 신규 요금제 출시 지연 배당 성향 50% 상회, 이익 증가 나와야 장기 배당 성장 가능
KT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용 통제로 본사 이익 성장 지속될 전망 부동산 분양 이익 발생으로 자회사 실적 호전 지속 전망 실질 자산가치대비 시가총액 적은 상황 낮은 PBR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 나올 수 있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조조정효과 미흡, 2026년 이후 인건비 다시 증가 전환 예상 자사주 배당 전환 당분간 어려울 것 인당 효율성 낮음, 과도한 영업비용 존재 외국인 한도 소진, 수급상 불리함 존재
LGU+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익 성장률/배당 성향 수준으로 볼 때 장기 배당 증가 여력 존재 비용 이슈 종결, 이익 측면에서 양호한 흐름으로 전환 예상 2026년 높은 연결 영업이익 성장 기록할 전망 통신 3사 중 PER, PBR 가장 낮음, 상대 서비스 매출액 성장률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동전화매출액 성장 둔화, B2B 매출 성장 폭 둔화 과거 대비 낮은 5G 순증 가입자 M/S 기록 중 주주 환원 규모로 보면 2026년 단기 감소 예상 2026년 총 배당금 규모 정체 예상
종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6년 이익 급증, DPS 조기 정상화 가능성 감안하여 SKT를 12개월 최선호주로 선정 	

자료: 하나증권

2) 6월 매력도는 SKT>LGU+>KT 순, 그나마 재료 있는 SKT를 최선호

6월 종목별 투자 매력도는 SKT>LGU+>KT 순으로 평가, 올해 이익/배당 성장 기대감 보유한 SKT를 Top Pick으로 제시

단기적으로 6월 통신서비스 업종 내 종목별 투자 매력도를 SKT>LGU+>KT 순으로 제시하고 12개월 Top Pick과 마찬가지로 6월 통신서비스 월간 Top Pick 역시 SKT로 제시한다. 이익과 배당, AI 이슈로 볼 때 그나마 3사 중 유일하게 재료가 살아 있으며 성장성 감안 시 경쟁사들과 기대배당수익률 차이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SKT는 단기뿐만 아니라 장기 투자 매력도도 높다는 판단인데 기저 효과로 2~3분기 실적이 양호하게 발표될 전망이며 AI RAN 및 피지컬 AI, 양자암호통신 관련해서도 3사 중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 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국책 AI 사업자 선정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단기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LGU+의 경우엔 특별한 호재가 단기에 나타나긴 어려울 것이나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며 올해 DPS 추정치 700원 기준 기대배당수익률 4.4% 수준이라 현 가격대에선 매수에 나설 것을 추천한다. 더불어 8~9월 2분기 실적 발표 시점에 2027년 자사주 매입/소각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난해대비 증가한 금액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반면 KT의 경우엔 가격적인 메리트를 제외하면 특별한 주가 상승 트리거가 없는 상황이라 단기보단 중/장기 매수에 나설 것을 추천한다. 특히 KT 토탈 영업 TF로 배치된 2,300명 본업 복귀 조치로 인해 2026년 이후 지속적인 인건비 증가가 예상된다는 점은 투자자들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다수 투자자들이 지난해 장기 KT 인건비 하향 안정화 및 제반 경비 절감 가능성에 큰 점수를 준 것인데 기업 투자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외국인 한도가 소진된 상황에서 자사주 매입/소각분의 배당금 전환 지급 조치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라 투자자들을 유인한 마땅한 방안이 없을 것 같다.

도표 33. 통신업종 종목별 투자 의견

구분	투자이견	목표가 (12개월)	사유
SKT	매수	140,000원	• 2026년도엔 높은 이익 성장, DPS 다시 큰 폭 증가 전환 예상
KT	매수	76,000원	• 2026년에도 본사 이익 성장 전망, 부동산 자회사 이익 개선 예상
LGU+	매수	20,000원	• 2026년 높은 연결 영업이익 성장 전망, 낮은 PBR/PER

주: 1) 종목 투자 등급은 1. 매수, 2. 중립, 3. 비종축소, 2) 투자이견은 향후 12개월 기준
 자료: 하나증권

도표 34. 6월 통신업종 종목별 투자매력도 순위

순위	종목명	주가(5/26)	3개월 예상 주가 밴드	P/E	P/B	평가 사유
1	SKT	102,100원	90,000~120,000원	19.1	1.6	• 올해 초기 DPS 정상화 예상, 국내 대표 양자암호+국책 AI 수혜주
2	LGU+	15,510원	14,000~20,000원	8.4	0.7	• 2026년 이익 급증 전망, 2027년 주주환원 기대감 높아질 것
3	KT	54,200원	50,000~70,000원	9.6	0.7	• 1Q DPS 상승 없으면 주가 상승 폭 예상보다 적을 수도

주: 2026년 예상 실적 기준, 단 투자 매력도는 향후 1개월 기준
 자료: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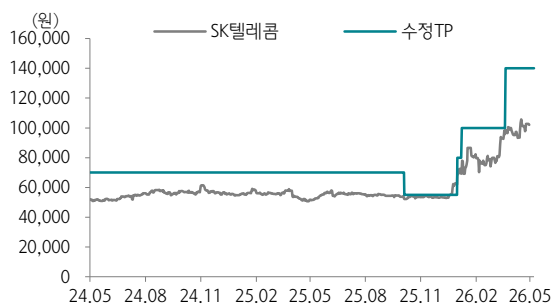
도표 35. 5월 통신업종 종목별 투자매력도 순위 변화

구분	순위(4월)	순위(3월)	순위 변화	사유
SKT	1	1	-	• 이익 성장/현금흐름 개선으로 2026년 초기 배당 정상화 전망
LGU+	2	2	-	• 2026년에도 900억원 이상의 자사주 매입 예상, 장기 밸류업 기대감 높아질 것
KT	3	3	-	• 거버넌스 리스크 해소, 하지만 DPS/이익 단기 전망 어두워 탄력적 주가 상승 어려울 듯

주: 투자 매력도는 향후 1개월 기준
 자료: 하나증권

투자 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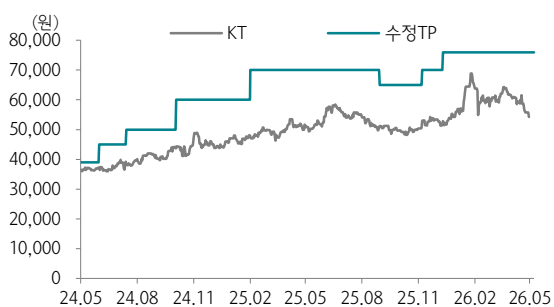
SK텔레콤



날짜	투자 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4.17	BUY	140,000		
26.2.3	BUY	100,000	-19.60%	-1.90%
26.1.27	BUY	80,000	-12.47%	-9.38%
25.10.31	BUY	55,000	-1.16%	14.00%
25.3.28	1년 경과		-	-
24.3.28	BUY	70,000	-21.72%	-12.14%

투자 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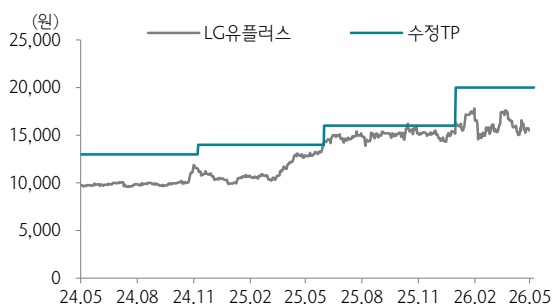
KT



날짜	투자 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1.6	BUY	76,000		
25.12.3	BUY	70,000	-24.70%	-22.57%
25.9.25	BUY	65,000	-23.37%	-21.23%
25.2.27	BUY	70,000	-25.61%	-16.57%
24.10.29	BUY	60,000	-24.54%	-18.33%
24.8.9	BUY	50,000	-18.52%	-11.60%
24.6.26	Neutral	45,000	-17.00%	-11.44%
24.3.28	Neutral	39,000	-7.79%	-3.33%

투자 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LG유플러스



날짜	투자 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1.27	BUY	20,000		
25.6.27	BUY	16,000	-6.38%	1.31%
24.12.4	BUY	14,000	-19.13%	2.14%
24.11.26	BUY	13,000	-10.26%	-8.46%
24.3.28	Neutral	13,000	-24.06%	-13.54%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2026년 5월 28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홍식)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홍식)는 2026년 5월 28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 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 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의견 비율공시

- **투자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비중축소)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7.25%	2.75%	0.00%	100%

* 기준일: 2026년 05월 25일